

ICT가 만드는 미래 헬스케어

2023. 6. 2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디지털융합연구소 소장 김승환

강연주제: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해가는 헬스케어의 미래를 조망

인공지능, 3D 프린터, 재생의료 등 기술의 발전은 수명의 연장을 넘어 죽음을 기술로 해결하려는 시도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헬스케어의 패러다임을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에서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진료의 도입은 헬스케어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로 바꾸고 있으며, 일상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헬스케어 적용은 지능화된 예측의료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또한,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정밀의료가 이루어져, 개인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본 강연에서는 기술의 발전, 특히 ICT, 정보통신기술의 헬스케어 융합을 통해 헬스케어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건강 100세, 수명연장 등 미래의 헬스케어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 소개합니다.

● 주요내용

- 100년 전에 꿈꿨던 재택진료와 원격의료
- 미래의료의 발전방향
- 헬스케어의 미래
- 수명연장의 꿈
- 신경과학: 생각읽기, 꿈의 해석
- 의료와 인공지능
- 예측의료와 예방의료
- 정밀의료
- 새로운 의료기술
- 질병을 치료하는 소프트웨어
- 질병을 치료하는 전자기기
- 미래의 헬스케어 어디까지 발전할까?